

일반인 대상 Bio 알리기 나선다!

생명공학연구원, 한해 50회 세미나 ... 윤리 및 안전성 이슈도 제기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이 일반인들도 참여하는 세미나를 통해 BT(Bio Technology) 알리기에 나섰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양규환)은 미국 콜드스프링하버연구소(www.cshl.edu)를 모델로 생명공학 대중화와 산·학·연 지식 공유라는 2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다는 계획이다.

우선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빙해 한해 50여회의 마라톤식 세미나를 개최하고 일반인으로부터 산·학·연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KRIBB 컨퍼런스> 프로그램을 2003년 하반기 본격 시행한다.

<KRIBB 컨퍼런스>는 매월 2회 이상 개최되며, 시행 첫해인 2003년 하반기에만 30여건이 개최될 예정이다.

주제는 산·학·연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첨단 생명공학 연구 및 업계 동향과 학생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일반정보, 그리고 생명공학 관련 사회적 이슈(윤리 및 안전성 등) 등 각계각층이 모두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생명공학연구원 양규환 원장은 “그동안 대학이나 기업은 물론 대중들과의 교감도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생명공학연구원을 생명공학의 대중화와 산·학·연 생명공학 지식공유의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자신했다.

<KRIBB 컨퍼런스>의 연중 행사일정과 세부내용은 책자와 인터넷을 통해 배포되며, 누구든지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또 세미나 내용을 텍스트와 동영상으로 홈페이지(www.kribb.re.kr)를 통해 서비스 할 예정이다.

콜드스프링하버연구소는 생명공학 전문 연구기관으로 매년 전세계 5000여명의 학생,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교육 및 학술 프로그램을 운영해 생명공학 대중화와 산·학·연 지식공유 및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7/22>